

경복궁 광화문

월 대

발굴조사



2023



표지설명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 1861~1919)의 백악춘효(白岳春曉)로 백악과 경복궁의 실경을 그린 작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월대(越臺, 月臺)란

궁궐의 정전 등 중요 건물에 설치하는 넓은 대(臺)로 월견대(月見臺, 달을 바라보는 대)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함.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돈화문, 덕수궁 대한문 등에 설치되었는데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른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함.





표지설명

심전 안중식(心田 安中植, 1861~1919)의 백악춘효(白岳春曉)로 백악과 경복궁의 실경을 그린 작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사 개요

조사명 : 경북궁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

조사기간 : 2022년 9월 ~ 2023년 4월

조사면적 : 1,620㎡

조사성과

- 남북길이 48.7m, 동서너비 29.7m의 월대규모 확인
- 광화문 중앙문과 이어지는 너비 7m의 어도(御道)지 확인
- 월대 축조방법 확인
잘 다듬은 장대석(길이 120~270cm)을 이용하여 2단의 기단 축조
기단석 하부에 여러매의 지대석을 놓고 적색점토와 할석을 보강한
기초시설과 뒷채움방식 확인
장대석 사이에 철편, 점토, 석회를 이용한 수평맞춤
- 월대 변화과정 확인
1단계 : 월대 축조 당시(고종년간, 1866년) 남쪽에 3구획된 계단지 존재
2단계 : 중앙 어도계단지의 경사로 변화
3단계 : 전차선로가 설치되면서 경사로 범위가 확장되고 계단이 동·서 외곽으로 축소 변형
4단계 : 일제강점기 전차선로의 단선 및 복선화로 월대가 파괴되고 광화문 이진

광화문 월대 변화과정 모식도



1단계
남쪽 3구획 계단



2단계
어도계단의
경사로 변화



3단계
경사로 확장,
계단축소,
전차선로 시설



4단계
난간석 철거,
도로화

옛 사진으로 본 월대



1890년대 월대(도서출판 서문당 제공)



1906~1907년 월대(국립민속박물관, 헤르만산더)



1917년경 월대(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1923년경(국사편찬위원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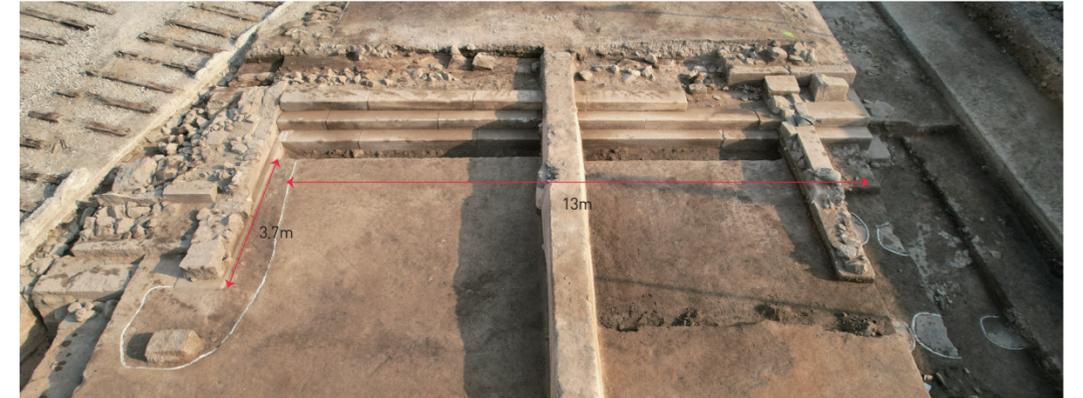
경복궁 광화문 월대 현황



어도지

월대 전경

동편 기단과 계단 및 뒷채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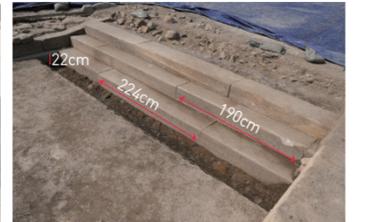
월대 계단지 전경(남쪽)



어도계단지 전경



어도계단지 소맷돌 지대석



동편 계단지 전경

기록으로 본 광화문 월대

세종실록 권 51, 1431년(세종 13) 3월 29일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광화문(光化門) 문밖에 본래 섬돌이 없어서 각품 관리들이 문 지역까지 타고 와서야 말에서 내리오니, 이는 매우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또 이 문은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이와 같이 낮고 누추하게 버려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돌을 채취하여 계체를 쌓고, 양쪽 곁으로 돌레를 쌓아야 하며, 또 강화 매도의 전석을 취해다가 안바닥을 포장하여 한계를 엄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민력(民力)을 쓰겠는가.” 하고 운허하지 아니하였다.

禮曹判書申商啓: “光化門外, 本無階砌, 各品官吏騎至門域下馬, 甚爲未便。

且此門乃朝廷使臣出入之處, 不宜如此卑陋。請伐石爲砌, 旁築外圍, 又取磚石於江華 煤島, 鋪設於內, 以嚴限隔。” 上曰: “今方農月, 豈可用民力?” 不允。

세종실록 권 97, 1442년(세종 24) 8월 13일

임금이 근정전에 나아가 친히 응시자(應試者)에게 책문(策問)을 과시(課試)하고,

광화문 밖 장전(帳殿)에 남시어 친히 무과 시험을 보았다.

上御勤政殿, 親策舉子, 出御光化門外帳殿, 親試武舉。

장전(帳殿): 임금이 앉도록 임시로 꾸민 자리를 이르던 말

세종실록 권 127, 1450년(세종 32) 윤1월 1일

명나라 한림 시강(翰林侍講) 예겸(倪謙)과 형과 급사중(刑科給事中) 사마순(司馬恂)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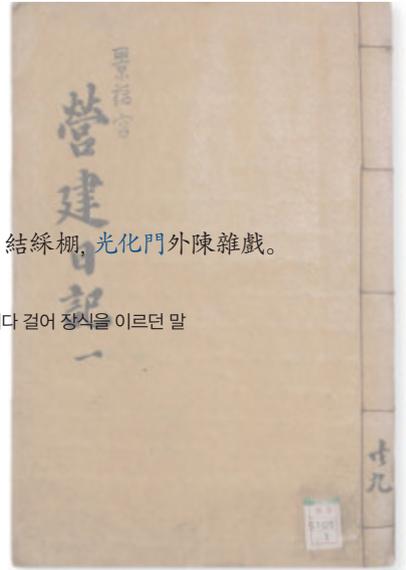
수양 대군(首陽大君)에게 명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하게 하고,

광화문(光化門) 밖에 채붕(綵棚)을 맺고 잡희(雜戲)를 베풀게 하였다.

丙午朔翰林侍講倪謙、刑科給事中司馬恂來, 命首陽大君, 率百官迎于慕華館, 結綵棚, 光化門外陳雜戲。

* 채붕(綵棚): 1. 나무로 단을 만들고 오색 비단 장막을 늘어뜨린 일종의 장식무대

2. 임금의 행차 때나 중국의 칙사를 맞이할 때 색실, 색종이, 형견 따위를 문이나 다리, 지붕 등에 내다 걸어 장식을 이르던 말



세조실록 권 18, 1459년(세조 5) 12월 27일

임금이 중궁(中宮)과 더불어 광화문(光化門)에 나아가서 화포(火砲)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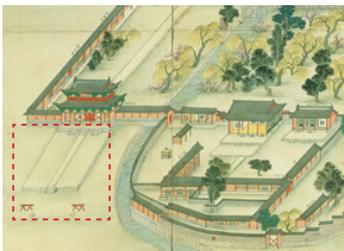
上與中宮御光化門觀放砲。

경복궁 영건일기 1866년 고종 3년 3월 3일

-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다. 모군이 궁 안에 쌓아둔 잡토를 지고 왔는데, 실로 4만 여 짐에 이르렀다.

光化門前築月臺以募軍負宮內所積雜土而實之至四萬餘負。

주요 궁궐 비교자료



창덕궁 동화문(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덕수궁 대헌문(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경복궁 근정전 월대와 계단

